



상처의 인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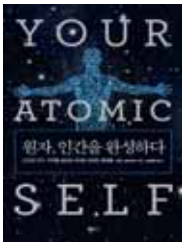
이왕주 지음

## 경쟁 시대 기댈 곳은?

전작 ‘철학, 영화를 캐스팅하다’를 통해 독자들에게 영화적 재미와 철학적 성찰을 선사했던 부산대 이왕주 교수가 ‘상처의 인문학’을 펴냈다. 저자는 속도와 경쟁으로 점철된 현실에서 인간이 기대야 할 곳은 어디인지를 묻는다.

저자가 보는 현실은 애매성, 모호성을 용납하지 않는 극한 경쟁의 장이다. 상처 없는 삶이 없을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저자에게 상처는 연대를 위한 강력한 밑거름과 진실을 드러내는 존재의 근원이다.

작가는 철학, 문학, 예술마저 시장 논리에 지배당하고 인문학마저 상품으로 간주되는 시대다. 어떤 신념과 가치에 승부를 걸어야 할지 알 수 없다. 범람하는 대중적인 인문 처방은 ‘가슴 없는 전문가’만 양산할 뿐이다. 오히려 저자는 이 길에 말한다. “지금은 더 고단하고, 더 지치고, 더 아파하며 상처의 용기를 보다 명증하게 추슬러야 할 시절이다.” <다음생각·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



원자, 인간을 완성하다

커트 스테이너 지음

## 과학·신학 속 인간순환

양자물리학 관점에서 볼 때 세상 모든 만물의 본질은 원자다. 이 같은 관점은 인간 또한 원자로 구성된 물질에 불과하다는 인식으로 수렴된다. 그렇다면 원자가 우리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메인주립대 기후변화 연구소 연구원 커트 스테이너가 펴낸 ‘원자, 인간을 완성하다’는 인간의 존재를 8가지 원자를 통해 해석한다. 산소, 수소, 철, 탄소, 나트륨, 질소, 칼슘, 인이라는 원자가 인간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자들의 순환 고리를 따라가다 보면, 인간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육체 소멸이 지금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종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가 원자적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지도 짐작할 수 있다. 과학적이면서도 문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저자의 관점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으로 구성되었으며 어디로 가는지 보여준다. <반니·1만9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

# 인간과 함께 숨쉬는 식물들... 희망을 싹 틔우다

## 희망의 씨앗

제인 구달 지음



“식물이 없으면 침팬지도 없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인간도 마찬가지다. 어린 시절 이 별의 잊혀진 땅,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의 울창한 숲에 관한 이야기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침팬지는 결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본문 중에서)

‘침팬지들의 대모’ 제인 구달이 책을 냈다. “제인 구달이 식물에 관한 책을 썼다고? 설마 아니겠지.” 사람들은 대부분 의아해한다. 그러나 그녀의 침팬지 사랑이 식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영국 출신 제인 구달 박사가 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유년기 체험 때문이다. 2차대전이 발발하고, 부친이 히틀러에 맞서 참전을 하게 되자 가족들은 시골 외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간다.

“잘 자란 나무 여러 그루와 이끼로 뒤

## 9·11 현장서 살아남은 돌배나무

### 생존 위한 식물의 소통 흥미로워

덮인 잔디가 깔린 널따란 정원이 있었다... 정원 주위는 가끔씩 손질하는 사람 호랑가시나무를 엮어 넣은, 높은 쥐뚝나무 산울타리가 방 둘러싸다.”

어린 시절의 강렬한 기억은 제인 구달을 자연의 세계로 이끈다. 그녀가 57년 전 아프리카로 건너가 침팬지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유년의 체험과 무관치 않다. 이후 그녀는 ‘제인 구달 연구소’를 설립, 침팬지와 야생 동물들의 서식 보호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다.

그로 인해 ‘제인 구달’은 환경운동 전도사로 자리매김 된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주장했던 전작 ‘희망의 밤상’과 ‘희망의 자연’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일으켰음은 물론이다.

그녀 세 번째 저작 ‘희망의 씨앗’ 역시 자연과 환경을 아우르는 살아있는 보고서다. 저자는 외할머니 정원부터 9·11테러 현장이었던 세계무역센터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보았던 식물들의 세계를 담아낸다.

보호를 넘어 인간과 함께 숨 쉬는 식물들의 진면목은 자못 다채롭다. 그 가운데 식물들의 의사소통은 인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무들은 해충이 출현하면 경보를 발령해 나뭇잎을 맛있게 만드는 화학물질을 생산하도록 독려한다. 가뭄에는 뿌리를 통해 신호물질을 전달,

인근의 식물들도 호흡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식물들의 씨앗에 대한 부분도 흥미롭다. 2000여 년 전 고대 로마 제국시대 마사다 요새에서 발견한 대추야자 씨앗이 그 사례다. 이 씨앗을 발아시켰는데, 후일 수나무로 밝혀진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나무에게 성경 속 인물 ‘므두셀라’(969년 생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저자는 식물의 이용과 학대에 대해서도 특유의 식견을 펼쳐 보인다. 흔히 대마, 양귀비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식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식물 잘못이 아니라 이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일례로 대마는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밀, 감자, 옥수수와 같은 식량 작물을 바라보는 시선도 남다르다. 옥수수가 바이오연료로 각광받으면서 대량 생산체제로 들어섰지만 부작용이 크다. 선진국 옥수수 대농장들의 압력이 강해지면 소규모 자영농이 몰락했으며 기업식 농업은 유전자 변형의 폐해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저자의 시선은 식물 속에 스며든 사람 손길에까지 향한다. 특히 ‘식물 사냥꾼’에 대한 호의적인 시각이 눈에 띈다. 다소 생소한 ‘식물 사냥꾼’은 서구 열강이



9·11 테러 당시 무너진 쌍둥이 타워의 잔해속에 묻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생존한 돌배나무.

18~19세기에 걸쳐 자국으로 다양한 식물과 종자를 보냈던 이들을 말한다. 채집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종류의 꽃과 나무를 보며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인 구달은 9·11테러 현장에서 살아남은 돌배나무 ‘서바이버’를 주목한다.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생존한 나무를 보며 자연의 의지와 희망을 발견한다.

“우리가 자연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인간들이 상처받은 자연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사라져가고 있는 꽃과 나무들 역시 다시금 ‘서바이버’와



멸종되는 것을 막은 일련의 기적중 하나인 코키아 쿼케이.

같은 생명력을 보여 줄 것이다.” <사이언스북스·1만9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세계적 사회학자 5명이 본 미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미래가 있는가

이매뉴얼 윌러스턴 외 지음

1930년대 대공황, 70년대 경기침체, 2008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 반복되는 자본주의의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자본주의는 ‘정상’으로 복귀할 것인가? 국제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이매뉴얼 윌러스턴을 비롯한 5명의 전문가가 자본주의를 면밀히 분석했다. ‘자본

주의의 미래가 있는가’는 향후 자본주의 진로를 진지하게 모색한다. 5명의 전문가들은 각자의 연구 영역과 이론에 따라 원인과 이후 전망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다만 전환과 관련해 이들은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집단적 선택, 즉 정치적 의지라는 점을 꼽는다.

이매뉴얼 윌러스턴은 1970년대 이래 가속화된 금융화를 통한 이윤창출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모든 유효 수요가 바닥을 드러낼 뿐 아니라 노동·복지·환경 등에서 비용 상승이 생산자의 이윤 추구를 압박, 자본은 더 이상 축적을 이뤘다 못하기 때문이다.

또다른 저자 마이클 맨은 이 같은 위기는 전 지구적 차원이 아닌 각 나라, 지

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진단한다. 각각의 사회가 경제, 군사, 정치 권력관계라는 다중의 네트워크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네가지 권력의 변천들은 다양한 범주의 인과관계를 형성하며 우연하게 교차하기 때문이다.

위기에 대한 진단은 다들지언정 저자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후의 전망은 간단하다. 위계질서, 착취, 양극화 등 현재 체제의 특징을 그대로 지닌 현재의 자본주의보다 더 나쁜 체제로 갈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아직까지 현존한 적이 없는) 체제로 갈 것인지 두 길 뿐이라는 것이다. <창비·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

## 좋은 인연들이 만든 집 뒷마루에서...



나무 집 예찬

김병중 지음

“한옥에 고인 시간의 우물은 퍼내도 퍼내도 계속 차오른다. 결코 고갈되는 법이 없다. 나는 시간부자가 된다. 그러니 시간을 늘려 살고 싶다면, 광속의 시간에 저항하고 싶다면, 나무 집으로 갈 일이다...” 화가 김병중이 20년간 마음속에 그리다 지고 살게 된 집에 관한 이야기 ‘나무

집 예찬’을 펴냈다. 저자가 예찬하는 ‘나무 집’은 ‘한옥’이다. ‘콘크리트 아파트’의 반대말이기도 하다.

책에서는 집 잘 짓는 법이나 집 잘 꾸미는 법 대신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으로 작은 나무 집 한 채를 쌓아 올리는 과정과 그렇게 지어진 집의 뒷마루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느낀 작고 소담한 행복을 이야기한다.

뉴욕 타임스 객원 사진기자인 김남식 이 가을과 겨울, 봄으로 이어지는 계절의 품 안에서 아침, 오후, 저녁, 밤, 새벽으로 이어지는 시간들 속에 시시각각 변하는 작은 한옥 한 채의 표정을 담양하게 담아냈다. <열림원·1만4000원> /이보람기자 boram@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파죽지성 5회 연속 선정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www.geumssoojang.com

연회장 가족모임 세미나 상견례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관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흙몰루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혼수가구 특가전**

SINCE 1990 **홍스게이스**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 1899-0240